화두일념 불 속에 들어가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歷劫傳傳無盡燈 (역겁전전무진등)
不曾挑剔鎭長明 (부증도척진장명)
任他雨灑兼風亂 (임타우쇄겸풍란)
漏屋虛窓影自淸 (누옥허창영자청)

오랜 세월 전해도 다함 없는 등불
일찍이 돋우거나 누르지 않아도 밝게 빛나네.
비 오고 바람 불어 어지러운 대로 두니
비 새는 집 빈 창에 그림자는 맑다.

금일의 결제 대중은 결제를 해도 결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고, 해제를 해도 해제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 티끌 한 점이 눈에 들어가면 헛꽃이 휘날리느니라.

오직 화두일념이 뜨거운 불무더기가 되어 萬魔(만마)와 千佛(천불)을 모두 태워버릴 때 佛祖(불조)의 向上一路(향상일로)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로다. 결제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施主(시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리라.

삼동결제에 동참한 여러 대장부여!

잡다한 세상일을 떠나서 불조의 관문을 타파하는 일은 上根機(상근기)의 수행자라야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깊은 바다의 큰 고기를 낚는 일과 같도다.

거친 번뇌가 잔잔해지면 미세한 번뇌를 알게 되고 미세한 번뇌가 흩어지면 그대들의 본래면목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리라.

본래면목을 확연히 깨닫고 활용할 수 있는 수행자를 일러서 본분사를 마친 大道人(대도인)이라 할 수 있으리라.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리지 않으며 범부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구족한 본래면목을 찾아 大自由人(대자유인)이 되고 大教化人(대교화인)이 되는 일은 불조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고 단월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리라.

天產英靈六尺軀 (천산영령육척구)
能文能武善經書 (능문능무선경서)
一朝識破孃生面 (일조식파양생면)
方信閑名滿天下 (방신한명만천하)

하늘이 뛰어난 육 척의 몸을 낳으니
문무도 능하고 경서도 잘하도다.
하루아침에 본래면목을 아니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 천하에 가득함을 알겠노라.

마음이 주인 되는 근본의 길

태고종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



冬嚴一念起(동엄일념기)
雪路步禪行(설로보선행)
願斷群迷惑(원단군미혹)
同證本來明(동증본래명)

혹한의 겨울 속에서 한 생각 서원을 일으키니
눈 덮인 길을 걷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
온갖 미혹과 어둠을 끊어낼 것을 서원하니,
모든 존재가 본래 밝음을 증득하기를 바라노라.

해마다 찾아오는 차가운 겨울, 수행대중이 다시 한 번 삼보 앞에 몸과 마음을 모아 동안거 결제를 맞이하니, 참으로 장구한 불조의 혜명이 이어지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안거는 세속의 분주함을 멀리하려는 피정(避靜)의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래성품을 밝히기 위해 보다 깊이 뛰어드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수행자는 이 시기에 비로소 본래마음과 마주하고, 허망한 분별과 망상을 녹여내어 무명(無明)의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모든 법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거 수행은 밖에서 무엇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근본의 길입니다.

좌선의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번뇌 하나를 꿰뚫어 보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드러나는 진실한 자성을 관조할 때, 비로소 수행자는 유정 무정의 법문을 체득하게 됩니다. 성성(惺惺)하면서 적적(寂寂)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참된 해탈의 문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혼탁하고 변동이 심하여, 사람들의 마음 또한 쉼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이럴 때 수행대중의 한 생각이 곧 세간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동안거는 단순한 정진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수행자는 깊은 선정 속에서 지혜를 밝히고, 그 지혜는 다시 중생을 향한 실천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태고종의 수행전통은 옛 조사들이 추구했던 그대로 고요 속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행을 펼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회대중에게 이릅니다.

결제에 임하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성불의 관문입니다. 혹한의 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수행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기운 속에서 더욱 단단히 결심하고,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자의 걸음입니다. 부디 이번 동안거가 각자의 번뇌를 녹이고, 온 세상을 밝히는 수행의 근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香霧寒林開覺路(향무한림개각로)
心燈夜寂照眞空(심등야적조진공)

향기로운 안개가 겨울 숲에 드리워지니 깨달음의 길이 열리고,
고요한 밤 마음의 등불이 켜져 참된 공성을 비추도다. 叅

줄 없는 거문고를 타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佛記2569年 乙巳年 十月 十五日
冬安居 結制法語

陞座 拄杖三下云 會麽?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세 번 치고]
아시겠습니까?

即下契合頓悟證 佛租踏路破賧出
木人塵裏昇蓮宮 石女嶺彈沒絃琴
즉하에 계합해서 물록 깨달아 증득하면
불조가 밟은 길을 파하여 뛰어나리라
나무사람은 티끌 속에서 연꽃 궁전에 오르고
돌여자는 고갯마루에서 줄 없는 거문고를 탄다.

今日 時會 四部大衆 還知麽?
금일 시회 사부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할진댄 다시 이르겠습니다.

지혜 바다의 주장자는
혹 금강왕보검을 짓고
혹 땅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지으며
혹 낚싯대와 풀잎의 그림자 탐색을 짓고
혹 주장자 쓰는 것은 짓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도리어 알았는가?
만약 안다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음이라.
나고 없어지며 거두고 펴서 종횡으로 응해 쓰니.
만약 서로 알지 못한다면 해 가운데 도망가는 그림자와 같다.
아시겠습니까?

고인의 언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스님이 어느 날 공양이 늦어지자 발우를 들고 당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설봉스님이 밥을 짓다 보고 이르되 "저 늙은이가 종도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 어디로 가는고?" 하니 덕산스님이 문득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설봉스님이 암두스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암두스님이 가로되 "대소 덕산이 말후구를 알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덕산스님이 이를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스님을 오라 하셔서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니, 암두스님은 덕산스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덕산스님은 그만두었습니다.

덕산스님은 다음날 승당에 올라와 과연 전날과 같지 않게 늠름한 큰 위용을 드러내 보이니, 암두스님이 승당 앞으로 와서 손벽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저 늙은이가 말후구를 알았네. 그런데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덕산스님은 정말 3년 만에 입적하였습니다.

修德寺 惠庵스님께서는 이 巖頭密啓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巖頭密啓 眼不見耳不聞
암두밀계의 의지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한다.

仁川 龍華寺 田岡스님께서는 巖頭密啓의 의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千聖不識 我亦不識
천명의 성인도 알지 못하니
나 또한 알지 못한다.

性徹方丈스님과 香谷祖室스님 두 분께서는 巖頭密啓의 의지는 末後句에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성철스님께서는 "如何是末後句인고?" 하시고는, 禪門拈頌 1179 護國禪師의 本心에 대해서 답한 偈頌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犀因翫月紋生角 象被雷驚花入牙
물소가 달구경하러 나왔는데 뿔에 문채가 나고, 코끼리가 우레에 놀라 입을 벌리니 어금니로 꽃이 들어간다.

香谷祖室스님께서는 역시 염송에 있는 雪竇顯선사가 답하신 末後句 偈頌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只許老胡知 不許老胡會
다만 노호가 知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노호가 會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 산승은 덕산탁발에 대해 살펴보건대 덕산스님이 末後句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
덕산, 암두 두분스님의 의지를 대중은 잘 참구하여야 합니다.
德山스님이 발우를 들고 당으로 가니 설봉스님이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자 덕산스님이 머리를 숙이고 방장실로 돌아갈 때, 설봉스님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말후구를 말하는 것이고, 금일 산승은 암두, 덕산 두 스님께서 설봉스님이 말후구 못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일부러 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이 산승이 있었다면, 즉제가 설봉스님이었다면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가는 덕산스님께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紅火團轉 淸水滔滔
붉은 불뭉치가 구르니
맑은 물이 넘치고 넘치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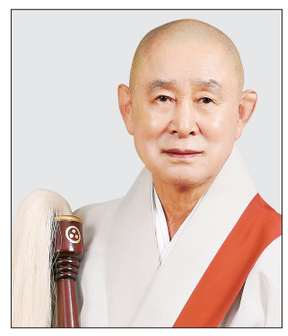
그리고 저에게 "巖頭密啓의 意旨가 如何오?"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露爲無爲露 隱爲也無隱
드러내려 해도 드러낼 수 없고,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네.

喝
[拄杖三下 下座하다.]

마음 여여하게 쓰면 곧 성불하리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慾執因製雲 욕심인제운
被欺自作影 피기자작영
覺心知映影 각심지영영
常淨靜佛心 상정정불심

욕망과 집착이 만든 온갖 구름
자신이 그린 그림자에 속고 있구나.
마음으로 그려진 그림자인 줄 알면
항상 맑고 고요한 부처님 마음이네.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오욕락에 이끌려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욕망도 자기 생각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그림을 스스로 그려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각자 자신의 몫이지만 그려낸 욕망의 그림자에 속아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생각 마음을 내려놓고 잘 살펴보면 보일 것은 고요한 마음 바탕에 생각으로 그려낸 갖가지 그림임을 스스로 깨달아 생각의 그림자에 속지 않으면 항상 맑고 고요한 부처님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늘은 늘 맑고 깨끗해서 연꽃에 비유합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싱그러운 연꽃을 피워서
은은한 향기를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꽃처럼 때 묻지 않는 맑은 향기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온갖 세파가 밀려와도 밖의 경계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맑게 깨어서 자신을 보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보고 있어야 한다.
분노에 휩싸여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아- 잘못됐구나! 바로 고쳐라.
본래 자신의 여여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잘못을 바로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항상 맑게 깨어서 자신을 보라.
화두를 성성하게 들고 있는가를 보라.
쓸데없는 망상에 휘말려 있지 말고
화두 일념에 있는가를 살펴보라.
여여한 마음으로
화두 일념으로 정진해 나가라.

미움도 원망도 온갖 시비도 전부가 자신의 생각이 만든
마음에 그림자인 것을 본래 나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처럼 늘 맑고 여여한 것이다.

무엇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딘가에 집착도 없는 유유자적한 마음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중국에 위산 선사가
제자인 향엄에게 물었다.

부모미생전에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향엄이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가 되었다.
몇 년을 궁구하고 또 궁구하던 중에 어느 날 풀을 베다가
기와 조각을 멀리 던지는 데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닫게 되었다.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군가?
시회 대중은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깨달았다면

하늘은 마냥 푸르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날려 다닐 뿐이네

동안거 정진 대중은 선원에서도, 율원에서도, 강당에서도,
염불원에서도, 각 법당에서도, 여여정사 금오선원에서도,
대성암에서도, 선문화관 시민선방에서도, 범어사 본사 말사가 동안거 기간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진 잘해서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菩提自性이 本來淸淨하니
但用此心하면 卽得成佛
보리자성이 본래청정하니
단용차심하면 즉 득 성불하리라.
우리가 모두 간직한 이 마음이 본래가 맑고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여여하게 쓰면 곧 성불하리라.
나 무 아 미 타 불

12월 4일(음력 10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을사년 동안거 결제 법회가 봉행됩니다. 이에 동안거 결제 법어를 게재합니다. 조계종 덕숭총림 · 조계총림 법어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